



78

## 농약원재료 포장업무 중 발생한 혈관성 두통(군집성 두통)

성별	남	나이	50세	직종	포장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김○○(남, 첫 발병시 47세)은 거성산업 농약원재료 포장부서에서 약 11년 간 근무 하던 중 2001년 7월 17일 자택에서 수면 중 심한 두통이 발생하여 세화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혈관성 두통(군집성 두통)으로 진단받았다.

### 2 직업력 및 작업환경

근로자 김○○이 포장작업을 하였던 사업장은 농약 원재료를 생산하는 사업장이다. 근로자 김○○은 제1공장 포장 작업장에서 분말과 액체로 된 농약원재료(주로 분말을 많이 포장)를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150~200kg 드럼에 액체로 된 농약 원재료를 투입 포장하는 작업을 할 때면 가스가 하얗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고 냄새도 났다고 하며, 분말로 된 농약원재료를 25kg 단위로 비닐봉지 안에 넣고 지대(밀가루 포대 비슷함)를 씌우는 작업도 하였는데 분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였다 한다. 근로자 김○○이 취급하였던 농약 원재료 중에서 두통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물질로는 시안화나트륨, 메토밀, 디클로르보스, 카보퓨란 등이 있었다.

### 3 가족력 및 개인력

근로자 김○○은 평소 건강하였다. 음주는 전혀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하루 3~4개피



(회사측 주장에 의하면 하루 10개피 정도였다 함) 정도 피웠으나 두통 발생 후부터 금연하였다고 한다. 커피는 하루에 5잔 이상 마셨으나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은 없었다고 한다.

#### 4 결 론

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 김○○의 두통은

- ① 의무기록 검토 결과 입사 당시 건강하였는데,
- ② 당해 사업장에서 농약 원재료 포장 작업을 11년 간 수행하면서 두통 유발물질들에 노출된 후에 두통이 발생하였고,
- ③ 의학적 검사 결과 혈관성 두통(군집성 두통)을 일으킬 만한 다른 질환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,

2001년과 2002년에 발생한 근로자 김○○의 혈관성 두통(군집성 두통)은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농약 원재료의 포장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지만,

2003년 6월 27일 퇴사 3개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두통은 농약 노출과 무관한 긴장성-근육수축성 두통으로 판단된다.